

농업과 복지를 연계한 새로운 사업 모델 구축 강화군 농업 '미래치유농업센터'가 이끈다



강화군미래치유농업센터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했던 미래치유농업센터가 지난 11월 8일 개관하면서, 2024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미래치유농업센터 1층에는 식물공장과 실내 정원, 2층에는 교육장 등의 시설을 조성했으며, 17,384㎡ 규모의 농업 신기술 시험포에는 첨단 ICT 활용 스마트 온실, 과수 연동하우스, 품종비교시험포, 치유농업시험포 등을 마련했다.

2024년부터 현장중심 실습교육장 및 대상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보건소, 노인복지관,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협업 연계망을 구축하여 대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 첨단 미래형 농업 기술보급 및 강화농업의 미래를 선도

최근 심각해지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강화군 지역 기후에 맞는 고소득 작목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군은 이번에 조성된 식물공장, 첨단 ICT 스마트 온실 및 품종 비교 시험포 등 농업 신기술 시험포 운영으로 첨단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농업인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귀농인 등 신규농업인들에게는 다양한 작목의 현장 중심 교육장으로 활용해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및 강화농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농업기술 양성의 허브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업·복지의 새로운 사업 모델 구축

강화군은 인구 중 65세 이상이 약 37%인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 사회구조 변화 및 아동,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고객의 요구와 문제에 맞는 활동과 사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치유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강화군은 「강화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으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많은 군민들이 보다 질 높은 치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 고령화, 노동력 부족, 농가소득 감소 등 농업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강화군 미래 치유농업센터가 강화농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최벽하 기자



미래치유농업센터 교육장



농업 신기술 시험포 전경



미래치유농업센터 조감도



식물공장

군민의 행복한 일상, 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유천호 강화군수, 2024년 군정 운영방향 시정연설



2024 군정운영 방향 시정연설

유천호 강화군수가 1일 열린 '제290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또한, 민선8기 4년은 강화군의 미래를 결정할 시기임을 강조하며, 2024년 군정 운영방향의 두 가지 핵심 목표로 '군민의 행복한 일상'과 '강화군의 미래시대 준비'를 제시했다.

유천호 군수는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약 3.4% 증액된 6,612억 원을 편성했으며, 특히 정부의

건정재정 기조를 따르면서도, 올 한해 적극적인 국·시비 확보 노력을 통해 예산을 확대 편성할 수 있었음을 강조했다.

2023년 주요성과로는 ▲서울과 인천에 장학관 추가 개관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확정 ▲60년만의 조업한계선 상향조정을 통한 어장 확장 ▲헬스케어 경로당 구축 ▲화개정원 정식개원 등을 꼽았다.

먼저, 군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70세 이상 어르신 군내버스 무상교통 ▲헬스케어 경로당 확대

운영 ▲문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LED 보안등 및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하점면·양사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선원면 주민복합센터 신축 ▲온수리 도시공원 조성 ▲동문안마을 도시재생사업 ▲양사면 북성리 생활여건개선 사업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확대 운영을 추진한다.

강화군의 미래시대 준비를 위해 ▲외포 종합어시장 건립과 함상공원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을 통한 외포지구 관광향 조성 ▲주문연도교 건설 ▲장학기금 150억원 조성 ▲하점면 농기계은행 신축 ▲스마트 로컬 팜 조성 ▲장곶항 어촌신활력 사업 ▲품물시장 주차장 확충 ▲화개정원 관광자원 추가 조성 ▲강화천문과학관 개관 ▲품물시장 주차장 확충 등을 핵심 과제로 언급했다.

유천호 군수는 "내년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약속을 지키는 군수로서, 공직자들과 함께 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원님들의 이해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승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90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아 강화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군민들을 대변 해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군정 운영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군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군민 말씀이라면 알았시다"라는 소신으로 민선 8기 출범 후 줄곧,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군이 한층 더 발전하고 군민들이 더욱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존 서울 2개 장학관에 이어 서울에 1개, 인천에 1개 장학관을 추가 개관하여 전국 최초로 총 4개의 장학관을 운영하게 되었고 강화섬쌀 캐나다 수출과 도시지역 공급 확대, 미래치유농업센터 구축과 장곶항 어촌신활력 공모사업 선정, 60년만에 조업한계선 상향을 통한 어장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권 행사를 위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시지정문화재 규제 구역 완화 방안이 지난 달 문화재청 심의를 통과하였고 이에, 총 1천 225만평의 규제면적 중 58%에 해당하는 710만평의

규제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마을안길 미불용지의 해소를 위해 현재까지 총 4만 5,000여평 규모의 미불용지를 선제적으로 매입 보상하였고 이를 통해, 군민 재산권 보호를 확대하고 도로와 관련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에 우리군 재정의 어려움을 지속 호소하여 시비 지원 부담률을 50%에서 70%로 상향 확정받았고 내년 부터 1만 1,000여 명의 농어업인에게연간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민들에게 더욱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초, 강화군 복지재단이 출범하였고 어르신들이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한 행복한 100세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경로당을 지속 확대하였습니다.



화개산 전망대

또한, 연중 수준 높은 문화공연 개최와 행복센터의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통해 군민들의 문화와 여가 활동 수준도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화개정원 모노레일

지난 5월 이후 지금까지 31만명 이상이 다녀간 화개정원과 화개산 전망대의 정식개장을 비롯해 외포리 함상공원의 시범 운영과 강화읍 원도심의 전국 대표 관광지 육성 등을 통해 강화군 연간 방문 관광객 1,7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함상공원 마산함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승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4년은 우리군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대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군은 수도권정비법, 군사시설보호법, 토지

이용 제한 등 중첩 규제로 지역개발에도 많은 제약이 있으며 빠른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 심화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건축재정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실제로,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중앙부처와 인천시 등을 찾아가 국·시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약속을 지키는 군수”로서 군민들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대비 3.4% 증가한 6,61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효율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무조건적인 절약이 아닌 투자가 필요한 곳엔 과감히 투자하여 차질 없는 군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군민의 행복한 일상”과 “우리군의 미래시대 준비”라는 핵심 목표를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일상이 더욱 행복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교통약자인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무상교통을 시행해 교통비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는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해 헬스케어 경로당을 현재 39개소에서 54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더욱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면적 635평 규모의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을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각종 재난, 사고와 범죄로부터 군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지마 범죄에 대한 군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안길 구석까지 LED 보안등과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였으며 기존 CCTV 통합관제센터의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더 나아가 2026년까지 확장 신축을 완료하여 범죄 예방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강화군 재난안전상황실을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하여 재난·재해로부터 빈틈없는 안전망 가동하였으며 매년 전국적으로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산불의 더욱 철저한 예방을 위해 산불예찰 드론을 새롭게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소멸위기에 있는 우리군의 최우선 과제는 군민 정주여건 개선일 것입니다.

지역 내 체육, 여가, 문화 활동 등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깨끗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이 지속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정 체육시설을 확장한 강화군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과 하점면과 양사면의 좁고 노후된 주민자치센터의 신축을 본격 추진하고 선원면에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준공에 따른인구 증가에 대비하고자 주민복합센터 신축을 시작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길상면 온수리에 어린이 친화형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고 남산 및 관청 근린공원에는 야간조명과 조경작품 등, 테마 경관을 추가 조성하여 주민의 쉼터를 확대 하겠습니다.

주거 취약지역을 깨끗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동문안마을에 도시재생사업과 접경지역인 양사면 북성리에 마을안길 정비·노후주택 수리·마을주차장 조성 등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지원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1개팀에서 2개팀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문화공연 활동 수준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군도 군민들이 멀리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전문공연장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강화군 아트센터’건립을 위한 사전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군의 미래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강화군은 총 300호실 규모의 4개의 장학관을 운영하여 대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내년부터는 장학관 사용료를 현재 월 13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낮추고 입사생 관리도 강화하여 자녀들의 충실한 학업과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에 대한 부모님들의 걱정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군민들에게 약속한, 장학기금 150억원 확대 조성 또한 내년까지 완료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으며 내년엔, 새롭게 대학 입시 설명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핵심 산업인 농어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미래치유농업센터와 신기술 시범포를 본격 운영하고 하점면에 농기계은행 신축과 함께 3천 900여 평 부지에 스마트온실, 식물공장 등 첨단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팜을 조성하여 미래 농업 준비와 청년농업인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를 통해 어촌지역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활력 넘치고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나날이 어려워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군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풍물시장 주차장

확충, 외식업소 컨설팅·교육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전통산업인 소창과 왕골산업 육성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연간 1,700만명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이에 더 나아가, 관광을 전략적인 산업으로 육성하여 관광 소비의 획기적인 증대를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우선, 우리군의 대표 관광지로 떠오른 화개정원에 수목·초화 추가 식재와 조형물 추가 조성,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의 관광콘텐츠를 확대하고 제2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화개정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대문 문화재야행을 지속 개최하고 하점면에 강화천문과학관을 새롭게 개관 운영하여 야간관광과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강화읍 원도심의 불거리와 즐길거리 확대, 강화기독교 역사·문화 순례길 조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다양한 관광트랜드에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외포 종합어시장 건립 착수와 함상공원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외포항을 전국 최고의 관광항으로 만들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 조성을 위한 용역을 시작하여 미래 관광동력이 될,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십년간 크게 개선되지 않는 광역교통 인프라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군은 강화~계양 고속도로,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 조지대교~거침도 간 해안도로 확장 등 광역교통망 연결이 그 어느때보다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더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와 인천시에 신속한 추진을 끊임없이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주문연도교 건설은 내년에 착공하고 불음연도교 건설은 국가재정지원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서도면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승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취임 이후 지금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아직도, 우리 군민들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할 현안 사항들이 많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그래왔듯이, 저와 강화군 공직자들은 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이 하나된 마음으로 격려해주시고 지혜와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가 꿈꾸는‘풍요로운 강화 시대’도래를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담긴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일

강화군수 유 천 호

강화군의의회 제29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024 군정운영 방향 시정연설

강화군의의회(의장 박승한)가 12월 1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2023년도 군정을 마무리하는 이번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비롯해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안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일정은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강화군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6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내년도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함으로써 18일간의 모든 회기를 마무리한다.

박승한 의장은 개회사에서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승한 군의장, “전국 기초의원 유일” 영예 제6회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공로상(행정안전부장관상)수상

강화군 4년연속 회계대상 수상에 기여...지자체 회계관리 롤모델 입증
군의 투명한 회계관리와 모범적인 재정운용에 적극 기여한 공로 인정



박승한 강화군의의회 의장은 지난 8일(금) 서울 소재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열린 『제6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시상식에서 군의 투명한 회계관리와 모범적인 재정운용에 적극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전국 기초의원으로서 유일하게 ‘공로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이 후원하는 국내 공공 회계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서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범적인 재정운용 지방자치단체

와 공로자를 발굴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이번 회계대상은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등 회계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이날 시상식에서 강화군은 기관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며 4년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두었고 박승한 강화군의의회 의장은 전국 기초의원으로서 유일한 수상자로서 개인분야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며 강화군 회계 운영의 위상을 드높였다.

현재 제9대 강화군의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는 박승한 의원은 제6대·제8대 군의원 시절부터 쌓아온 탁월한 회계 실력으로 군의 재무보고서 등 12개 각 결산서의 결산 세부내역 및 각 수치의 적합성검토 작업을 9년 넘게 직접 수행하였으며, 살림살이의 시작인 예산에서부터 결산까지 재정의 수립과 집행, 그 목적과 이유를 각 부서에 직접 찾아가 질의 및 지도하며 강화군의 재정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크게 공헌하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이로써 박승한 의장은 지난해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시상식에서의 ‘의정부분 최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메이저 시상식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날, 박 의장은 “본 상은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강화군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해준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의미있는 상징으로써 그동안 강화군이 모범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왔다는 것을 인정받아 기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정밀한 군 예산·결산 검토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됨으로써 강화군민이 믿고 소통할 수 있는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 대상 우수상 수상...4년 연속 수상 강화군, 국내 공공 회계 분야 최고 권위의 상



강화군 기초단체부분 우수상 수상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8일, 한국경제신문사에서 개최된 '제6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4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 대상은 국내 공공 회계 분야에서 최고 권위의 상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재무 정보의 우수성 및 회계 투명성을 제고한 지방자치단체에게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정부회계학회 등이 후원하며, 모범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홍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한국경제신문·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 심사 평가한다.

평가는 2022회계연도 재무 보고서와 예산 및 결산자료를 토대로 각계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회계 인프라, 회계정보, 재정관리, 회계정보 공시 4가지 분야를 심사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욱 쉽게 재정정보를 확인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건전한 재정운영과 주민의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눈에 보이는 공정하고 신뢰성있는 평가체계 운영 강화군, 성과중심 군정 도약!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강화군,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8일, 한국경제신문사에서 개최된 '제6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4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 대상은 국내 공공 회계 분야에서 최고 권위의 상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재무 정보의 우수성 및 회계 투명성을 제고한 지방자치단체에게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정부회계학회 등이 후원하며, 모범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홍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한국경제신문·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 심사 평가한다.

평가는 2022회계연도 재무 보고서와 예산 및 결산자료를 토대로 각계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회계 인프라, 회계정보, 재정관리, 회계정보 공시 4가지 분야를 심사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욱 쉽게 재정정보를 확인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건전한 재정운영과 주민의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화군 보건소, 한파 대비!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함께 합니다



강화군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겨울철 한파 종합대책에 따라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파 대책 기간인 2024년 3월 15일까지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전문인력 30명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2,070여 명에 대한 건강관리에 나선다.

방문간호사가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에 방문해 혈압 및 혈당 측정 등 기초 검사를 진행하며,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안부를 확인한다. 또한, 어르신 맞춤형 보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해 ▲가벼운 실내운동 및 실내 적정 온도(18~20℃) 유지 ▲외출 시 방한용품(내복, 목도리, 장갑)을 사용해 노출 부분 보온 ▲영양분을 갖춘 식사와 적절한 수분 섭취 ▲보폭을 줄여 걷기 ▲굽이 낮고 미끄럼이 방지된 신발을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역대 최대 규모, 올해 보다 374명 증가 강화군, 2024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3,530명 모집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오는 22일까지 2024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3,53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유형별 모집인원은 공익활동형 3384명, 사회서비스형 130명, 시장형 16명이다.

이번 모집 인원은 올해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6년만에 보수도 인상되어 공익활동형은 2만 원이 오른 월 29만 원, 사회서

비스형은 4만 원이 오른 월 63만 4천 원을 받게 된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면 참여가 가능하며 환경개선사업, 노노케어, 경로당실버센터 등 공익증진 봉사활동 일자리에 배치된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60세 이상(기초연금 수급 무관) 군민 중 경력과 활동 역량 평가를 통한 심사를 거쳐

헬스케어매니저, 강화해설사, 공공시설 민원 안내 등 일자리에 배치된다.

시장형 일자리는 60세 이상(기초연금 수급 무관) 군민 중 카페 근무가 가능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버카페 일자리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신분증, 증명사진,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강화군 노인복지관에 신청하면 된다.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대상자는 길상면에 위치한 강화군노인문화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강화군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해 일자리 양적 확대와 신규 사업을 통한 질적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라며 “노인일자리란 소득 보전은 물론 사회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주는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라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 2024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3,530명 모집



강화군, 2024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3,530명 모집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워크숍 개최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만드는 강화!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유천호, 조인술)가 6일 명진뷔페에서 민관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모두의 삶이 행복한 강화!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만드는 풍요로운 강화’라는 주제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 협의체는 행사장에 모여 1년 동안의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였

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과 역할 이해하기’ 및 ‘지역주민에게 호감으로 다가가는 대화기술’을 주제로 특강도 이어졌다.

조인술 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위원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신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뤘다”며, “이번 워크숍을 바탕으로 강화군의 복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인 유천호 군수는 “소외문제를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

력하는 위원분들의 활동을 보니 강화의 밝은 미래가 보인다”며, “1년 동안 지역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군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강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협의체 등 총 372명으로 구성되며,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민관협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강화군, '제51기 노인대학 졸업식' 올해까지 총 3,945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유서 깊은 노인대학



노인대학 졸업식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일 (사)대한노인회강화군지회 주관으로 제51기 노인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은 유천호 강화군수, 배준영 국회의원, 박승한 강화군의장 등 내

빈과 노인대학 졸업생 및 가족, 노인회 임원진 200여 명이 참석했다.

졸업식에는 모범 졸업생 22명이 각 기관단체장상을 수상했으며, 모든 학사 과정을 마친 86명의 졸업생이 가족 및 내빈들의 축하를 받으며 자랑스러운 학 사모를 썼다.

강화군 노인대학은 1978년 강화경로대학으로 개설되어 올해로 45년의 역사 를 맞았으며 올해까지 총 3,945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유서 깊은 노인대학이다.

이재웅 노인대학장은 “노인대학에서 배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가 펼쳐질 것을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 겠다”고 말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오늘의 졸업식까지 열정으로 배움에 임해주신 노인대학 졸업생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강화군은 앞으로도 노인대학 활성화 및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의 대내외 정책 추진 방향 논의 민주평통 강화군협의회, 2023년 제21기 4차 정기회의 개최



민주평통 정기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강화군협의회(회장 김경호)가 6일 강화군청 4층 진달래홀에서 제21기 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자문위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성원 보고

및 개회 선언 ▲협의회장 개회사 ▲임원 임명장 수여 ▲주제 해설 및 토론 진 행 ▲2023년도 주요 활동 평가 보고 ▲2024년도 주요 사업 논의 등으로 진행 되었다.

특히 이날 정기회의는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의 대내외 정책 추진 방향’을 주 제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김경호 협의회장은 “제21기가 지난 9월 1일 자로 새롭게 출발했는데, 민주평 통 자문위원으로서 임기 2년간 지역의 통일 담론 형성에 힘써주시길 바란다” 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자문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근거한 평화 통일정책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건의·자문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마다 협 의회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정기회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 및 소통 결과를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무처는 수렴된 의견을 축적해 정책 건의에 꾸준히 반영하고 있다.

2023년 강화군 새마을지도자대회 및 체육대회, 장기자랑 개최 강화군 새마을회, 한 해 마무리하며 화합의 시간 마련



강화군새마을지도자 대회

강화군 새마을회(회장 조인술)가 4일 명진비페에서 ‘2023년 강화군 새마을 지도자대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유천호 강화군수와 박승한 강화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기관단체장, 내빈, 새마을지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했으며, 우수단체 및 유공자 표창, 장

학금 수여, 체육대회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우수단체 시상에서는 불은면 부녀회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강화읍 협의회, 강화읍 부녀회가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총 38명의 개인 시상이 이어졌으며, 새마을 장학생 10명에게 새마을지도자 육성을 위한 장학 금도 전달 및 노래자랑, 경품추첨도 진행되었다.

조인술 강화군 새마을회장은 “지난 1년간 강화군을 위해 애써주신 새마을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강화군 새마을회는 내년에도 나눔·봉 사·배려 정신을 바탕으로 강화군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천호 군수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솔선수범하고 계신 새마을지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며, “내년에도 지도자분들이 한마음 한뜻 으로 뭉쳐 풍요로운 강화를 위해 사회봉사 활동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한편, 강화군 새마을회는 여름 김치 나누기,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 사랑의 연탄 나누기 등 나눔문화 확산과 불우이웃돕기 활성화, 공동체 정신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 최벽하 기자

불은면 노인회, 깨끗한 우리 동네는, 우리 손으로!



불은면, 우리동네 환경정화운동

강화군 불은면 노인회(회장 구경회)가 지난 11월 29일 광성보에서 덕진진으로 이어지는 나들길 및 해안도로 변의 환경정비에 나섰다.

노인회 회원 36명이 참여해 약 2.3km 구간의 해안도로 일대에 방치돼 있던 쓰레기와 생활폐기물 1.5톤을 수거하며 깨끗한 해안가 만들기에 힘썼다.

광성보에서 덕진진 해안도로 일대는 평소 강화의 해양관광유적을 탐방하

기 위해 많은 나들이객이 방문하는 곳이다.

구경회 회장은 “우리 마을의 얼굴인 불은면 해안도로 일대가 깨끗해진 것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며 “깨끗해진 나들길을 보고 방문객들이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수 불은면장은 “추운 날씨에도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 활동해주신 각 리 노인회 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교동면, 교동섬 어머님들 ‘강화 한바퀴’



교동면 강화섬 나들이

강화군 교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손명섭)는 지난 11월 27일 문화생활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들이를 진행했다.

강화의 명소와 남부 지방을 돌아보지 못한 교동 어머니들을 위해 마련한 행사로, 석모도 미네랄 온천과 동검도 365예술극장에서 영화 관람 후 동막해수욕장에서 바람을 쐬고 돌아오는 여정으로 진행했다.

이날은 어르신 26명과 협의체 위원 12명이 함께해 나들이를 즐겼으며, 어

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더 자세한 사항은 면사무소를 방문해 안내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행사에 참여한 어머니는 “재밌는 영화를 보고 맛있는 밥을 먹으며 강화 한바퀴를 돌고 나니 여한이 없다.”며 즐거워했다.

행사를 주관한 손명섭 위원장은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행사를 만든 보람을 느낀다.”며 “어머니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 최벽하 기자

양사면, 폐현수막으로 만든 장바구니·마대 나눠드려요

강화군 양사면(면장 이지영)이 지난 11월 29일 폐현수막으로 장바구니와 마대를 제작해 주민 대상으로 시범 배부에 나섰다.

현수막은 폴리에스테르와 면 등의 합성섬유로 만들어져 소각·매립 처리 시 별도의 비용과 온실가스가 발생된다. 이에 양사면에서는 기간이 만료된 현수막을 활용해 쓰레기 수거용 마대

와 장바구니를 제작 후 배부했다.

장바구니를 받은 덕하리 주민은 “현수막 소재가 튼튼해서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다.”며 “방수 처리도 되어있어 수영가방으로 제격이다.”고 말했다.

이지영 면장은 “올해는 폐현수막 장바구니와 마대를 소량 제작했지만, 내년에는 수량을 늘려 더 많은 주민들에게 배부하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양사면, 폐현수막으로 만든 장바구니



2023년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
납부기간	2023. 12.16.(토) ~ 2024. 1. 2.(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셔야 합니다.)
납부방법	• 직접 납부 : 모든 금융기관 • 인터넷 납부 - 인천시 이택스(ctax.incheon.go.kr) - 위택스(www.wetax.go.kr) - 지로납부(www.giro.or.kr) • 신용카드 납부 -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납부 - 인천시 전자납부(wetax.incheon.go.kr) - 재무과 방문 납부 : 신용카드 납부 가능 - 자정납부 : 위택스 온라인 신청, 재무과 방문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와 인쇄된 가상계좌로 입금 • 지방세입계좌 납부 - 고지서에 인쇄된 지방세입계좌로 입금 • ARS 납부 : 1599-7200, 1661-7200



 강화군청 재무과 ☎032)930-3043

배준영 의원, 인천 2호선 강화 연장 추진

인천시, 인천2호선 연장 통해 강화읍까지 이어지는 전철 확장 위한 용역 착수



선원면을 거쳐 강화읍까지 이어지는 연장 노선을 추진하고자 올해 4월,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인천시 철도과장으로부터 이같은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배준영 의원은 “강화 지역에 고속도로가 곧 착공에 들어가고 여러 지방도로도 건설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이 자주 애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며, “특히 주말에는 교통정체가 매우 심각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고 주민들의 교통 편의 확충을 위해서는 전철 도입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배 의원은 “강화 전철시대가 열리면 도심으로의 접근성 향상은 물론, 인구 유입과 지역 발전에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며, “강화 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도입 예정인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하여, 조속히 전철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국토부와 협의 거쳐, 내년도에 제2차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승인(2025년 고시)을 받을 예정이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6일(수), 인천 중구 신흥동에 위치한 지역사무실에서 임관만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철도과로부터 강화 전철 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강화군의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인천2호선 연장을 통해 강화군까지 이어지는 전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천2호선은 검단오류역이 종점으로, 인천시는 강화남단~길상·불은~



한연희씨, 그게 맞습니까?



송 기 영

강화군청 공보관

대안없는 비판은 공허하다. 중앙마트 문제가 그렇다. 너도나도 한마디씩 하지만, 비판만 있고 제대로 된 대안은 없다. 더군다나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대안이라고 제시하며 혼란을 부추기고, “강화군이 이것도 안해준다”, “약자인 소상공인에게 횡포를 부린다”고 억지를 부린다.

행정가 출신 한연희 씨는 강화뉴스 10.4. 일자 기고문에서 강화군에 드리는 제언이라며 “(중앙마트 출입로 불법점유부지에 대해) 공유재산법과 전통시장육성법에 의거 우선 대부”해 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중앙마트가 무단점유한 부지는 법적으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결정된 부지로 다른 목적으로 허가할 수 없어 대부분 매각이 불가능한 토지다. 또한, 사전에 건축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임의대로 공사를 진행한 건으로 법적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자 한연희 씨는 11.20. 일 2차 기고문에서는 말을 바꿔 “설사 위법한 사항이 있더라도 법에서 군수에게 맡긴 재량으로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처음에는 대부가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더니, 이제는 위법이라도 군수 재량으로 가능하지 않냐는 것이다.

위법을 합법으로 바꿔주는 재량권? 군수가 면죄부라도 발행할 권한이 있다는 말인지. 오랫동안 국회에서 법을 다뤄봤던 필자로서 들어본 적도 없는 해괴한 주장이다. 행정가 출신답게 법적 근거를 갖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될 일인데, 아무런 법적인 근거 제시가 없다. ‘군수의 재량, 대법하고 통큰 행정’ 운운하며, 중앙마트 문제를 강화군과 군수의 책임으로 덮으려는 악의적인 의도만 보여진다.

최근에는 한연희 씨가 뜬금없이 중앙시장 문제를 공개토론 하자고 제안했다. 토론은 쟁점이 있어야 한다. 중앙마트 문제의 해결방안은 이미 나와 있다. 법에 정해진 대로 원상회복을 하면 된다. 현재의 불법적인 현상을 유지할 다른 방도가 없다. 두 차례 기고문에서 엉뚱한 해법만 제시해 놓고 무슨 공개토론을 하자는 것인지 황당하다. 혹시 중앙마트 문제를 자신의 정치적 홍보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기까지 한다. 이런저런 말 할 필요없다. ‘제갈량 비단주머니’가 있으면 그냥 꺼내놓으면 된다. 그러면 강화군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겠다.

필자가 아는 바로는 중앙마트측에서 언론과 정치권까지 접촉하며, 여론전을 벌이며 강화군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심지어 기천만원을 들여 유명일간지에 “강화군이 부당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대통령 호소문까지 광고로 게재했다. 대통령이라도 법을 어기면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미 병을 치료할 약은 나와 있는데, 병을 악화시키는 처방만 있다. 누가 의도한 것인지 모르지만, 법에 맞지 않고 정상적이지도 않다. 차라리 광고할 돈으로 원상회복을 했다면 진즉에 해결되지 않았을까? 주변 조력자들이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대목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저의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

한연희 씨는 고의든 행정에 대한 무지든 잘못된 해법을 주장해 갈등을 더 조장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강화군민과 강화군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길 바란다.

중앙마트 문제에 대해 우리 군민들께서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법에 정한 정상적인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법을 어기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는 없다. 중앙마트측의 요구에 대해 안해주는 것이 아니라 못해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특정세력들이 더 이상 해괴한 해법으로 군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 군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기고

이경수

망산 봉수가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교동 화개산 봉수

역사의 섬답게 강화에는 국가지정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보물이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을 비롯해 12건입니다.(국보는 없습니다) 사적은 ‘강화 삼랑성’을 포함해 16건입니다. ‘강화 갑곶리 탕자나무’를 포함해 5건의 천연기념물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적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2023년 11월 22일에 ‘강화 망산 봉수 유적’이 서해안 다른 지역 봉수와 함께 사적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내가면 망산은 덕산으로도 불립니다. 그곳에 봉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 후기 군사 통신시설인 ‘제5로 직봉(전남 여수~서울 목멱산)’ 노선상에 위치하는 61개 봉수 유적 중 역사적·학술적 가치, 잔존 상태, 유구 확인 여부 등을 고려하여 16개소를 국가지정 문화유산 사적 「제5로 직봉」으로 지정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16개소 봉수 유적은 여수 돌산도, 고흥 마복산, 고흥 장기산, 장흥 전일산, 해남 좌곡산, 해남 달마산, 해남 관두산, 진도 침찰산, 무안 고림산, 영광 고도도, 부안 점방산, 논산 황화대, 논산 노성산, 천안 대학산, 평택 괴태곶, 강화 망산입니다.

봉수(烽燧)는 국경지방에서 적의 침입이 있을 때, 이를 알리는 군사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드문 경우 이기는 하지만, 고려시대에 외국 사신의 길 안내를 위해 봉수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봉(烽)은 횃불이라는 의미이고, 수(燧)는 연기라는 뜻이에요. 낮에는 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연기를 피워서 신호를 보내고, 밤에는 횃불로 연락을 취했기 때문에 봉수라고 합니다.

적의 침입이 없는 평상시에도 봉수를 올렸을까요? 예, 올렸습니다. “이상 무!”라는 의미로 봉수 하나

를 올렸습니다. 그래야 저 산꼭대기 봉수대에 사람이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요. 백성들도 봉수 하나 올린 걸 보며 ‘오늘도 별일 없구나.’ 안심하게 되고요.

고려 때는 봉수를 1~4개 올렸습니다. 평상시 아무 일 없을 때는 횃불이나 연기를 한 개 올리고, 비상시에는 상황이 급박한 정도에 따라 네 개까지 올린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하나가 늘어 1~5개 올리게 됩니다. 평시에는 이상 없다는 의미로 1개를 올리고 적이 나타나면 2개, 적이 국경에 접근하면 3개, 국경을 침범하면 4개, 전투가 벌어지면 5개를 올리도록 했습니다. 강화처럼 해안을 끼고 설치된 봉수의 경우, 평상시 봉수 1개, 적선이 바다에 나타나면 2개, 해안 가까이 접근하면 3개, 우리 병선과 전투가 벌어지면 4개, 적병이 물에 상륙하면 5개를 올리게 했습니다.

불이나 연기를 피우기 위해서는 봉수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전망이 좋은 산 정상 부근에 봉수대를 세우는데 너무 높은 산은 피했습니다. 주로 200m 안팎 높이의 산에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야트막한 산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높은 산에도 봉수대를 두었습니다.

왜 높은 산을 피했을까요?

너무 높으면 봉수군이 오가기 힘들습니다. 관리가 어렵습니다. 날이 맑아도 높은 산 정상부는 구름에 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름에 갇히면 봉수를 올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는 봉수대를 설치하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횃불과 달리 연기는 약한 바람에도 흩어집니다. 연기가 흩어져 버리면 2개를 올린 것인지, 3개를 올린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연기가 곧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마른 말뚝과 소똥을 왕겨나 솔잎 등

과 섞어서 연기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흩어지지 않게 하는 데 이리 뚝과 여우 뚝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만, 쉽게 구할 수가 없어서 말과 소의 뚝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낮에 알리는 것은 반드시 연기로 하는데, 바람이 불면 연기가 곧바로 올라가지 못하므로 후망(候望)하기 어려우니, 이제 봉수가 있는 곳에는 모두 연통을 만들어 두게 하라.” 《성종실록》

성종이 명했습니다. 이때부터 봉수대에 연통이 설치됐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봉수길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돼 있었습니다. 《증보문헌비고》에 따르면, ①함경도 경흥 ②경상도 동래 ③평안도 강계 ④평안도 의주 ⑤전라도 순천에서 서울 목멱산 봉수에 도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경흥·강계·의주는 주로 북쪽 여진족의 침략을 대비함이고, 동래·순천은 주로 남쪽 왜군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

다. 강화의 봉수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올라오는 봉수길에 속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 ‘제5로 직봉’입니다. 문화재청은 ‘제5로 직봉’이 시작되는 지점을 전남 여수라고 했는데 《증보문헌비고》는 순천이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요, 조선 당시에 여수는 순천도호부 소속 고을이었습니

다. 순천 안에 여수가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북 국경에서 서울까지 봉수가 도착하는 시간은 대략 얼마나 걸렸을까요? 12시간 정도라고 말해줍니다. 12시간! 틀린 건 아닙니다만, 진실도 아닙니다. 평상시 정해진 시간에 매일 똑같이 올리는 봉수가 12시간 정도 걸린 겁니다. 습관처럼 반복되는 작업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의 등장·침입이라는 실제 상황 발



서울 목멱산 봉수 모형(전쟁기념관)

생 때 얼마나 걸렸는가, 이겁니다. 정확히 알 수 없습
니다만, 다음 사료가 대략적인 시간을 알려줍니다.

“국초에 봉수가 경계를 늦출까 염려하여 남몰래
변방에서 시험 삼아 봉화를 들게 하자 5~6일 만에
서울에 이르렀었는데…” 《중종실록》

5~6일 정도입니다. 국경에서 불시에 봉수를 올리
게 하고 그게 서울까지 도착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
지 쟀 겁니다. 그랬더니 5~6일 걸렸습니다.

각 지방 봉수대는 대략 10~20리 내외로 설치되어
서울까지 이어집니다. 비바람이 몰아쳐서 봉수를 올
릴 수 없을 때는 봉수군이 다음 봉수대까지 달려가
서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너무 높은 산에 봉수대
가 있다면, 이런 연락이 더 힘들어지겠죠.

봉수제도는 운영 당시 가장 신속한 연락 방법이였
습니다. 하지만 봉수군의 근무 자세나 날씨에 따라
서 연락이 끊기는 일이 잦았습니다. 봉수를 올리지
않으면 봉수군과 해당 고을의 수령까지 처벌받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망산(덕산) 봉수

강화부 우수 이의필이 장계하기를, “이달 7일 본
부의 남산 봉대(烽臺)에서 봉화를 올리지 않았는데
조사해 보니 봉직(烽直)이 술에 취하여 실수하였다
고 했습니다. 제대로 단속하고 경계하지 못한 잘못
이니 황공하여 처벌을 기다립니다.” 하였다. 비변사
가 해당 유수를 파직하도록 계청하자, 그대로 따랐
다. 《정조실록》

정조 때 이런 일이 있었네요. 강화 남산 봉수군이
술에 취해 봉수를 올리지 못했고 그 결과 강화유수
가 파직됐습니다. 봉수가 끊겼다고 그 지역 수령이
항시 파직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기강의 차이에 따
라 달랐겠지요. 아무튼, 강화유수 자리가 보통 자리
가 아닌데도, 정조는 엄히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론상 봉수를 올리지 못했을 때 어떤 처벌
을 받게 되는지 보지요. 시기에 따라 처벌 규정이 조
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1532년(중종 27) 당시의
규정에 따르면, 적이 출현했을 때 봉수를 올리지 않
으면 봉수군은 장(杖, 곤장) 80대, 수령은 70대를 맞
아야 했습니다. 적이 국경에 이르렀는데 봉수를 올리
지 않으면 봉수군은 장 100대, 수령은 장 100대에 더
해서 파직입니다. 적과 접전이 벌어졌는데도 올리지
않으면, 봉수군과 수령 모두 참형에 처합니다.

“남산에 봉수대가 있었어?” 예, 그렇습니다. 혹시
북산에도 봉수대가 있었을까요?

북산에도 있었습니다. “아니, 남산·북산 둘 다 봉
수대를 운영할 필요가 있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 북산 봉수를 운영하다가 1677년(숙종 3)부터
북산 대신 남산 봉수를 쓰게 됩니다. 그 계기가 이러
합니다.

강화유수 허질이 아뢰기를 “본부의 봉수가 고을
뒤편에 있는데 앞뒤가 막혀 멀리 망볼 수가 없으므
로, … 앞산의 한 봉우리는 산세가 가장 높고 사면
에 막힌 곳이 없으며 그 위에는 우물도 있으니, 뒷산
의 봉수를 이 봉우리에 옮겨 설치하는 것이 편리할
듯합니다. 그러나 변통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감히
이를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
다. 《비변사등록》

강화유수 허질이 청해서 북산 봉수를 폐지하고 남
산 봉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허질 유수의 말 가
운데 ‘고을 뒤편’ 봉수가 북산 봉수이고, ‘앞산’이 남
산입니다.

이제, 강화 어디어디에 봉수대가 설치됐었는지 표
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조선 초에는 별립산, 북산을 거치는 경로였는데 조
선 후기에는 화개산, 봉천산, 남산으로 이어지게 됩
니다. 《강화부지》 기준으로 볼 때 저 아랫녘 전라
도에서 올라온 봉수가 붙으면 대모산, 진강산, 망산,
화개산, 하음산, 남산을 거쳐 김포로 가고 김포에서
서울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가운데 망산 봉수가 이번
에 사적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교동 화개산 봉수도
일부 시설이 남아 있는데, 거기는 제외됐네요.

출처	봉수 전달 순서(좌→우)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	대모산	진강산	망산 (덕산)	별립산	송악산 (북산)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	대모산	진강산	망산 (덕산)	화개산	하음산 (봉천산)	송악산 (북산)
《강도지》 (1696년)	대모산	진강산	망산 (덕산)	화개산	하음산 (봉천산)	남산
《강화부지》 (1783년)	대모산	진강산	망산 (덕산)	화개산	하음산 (봉천산)	남산

강화의 봉수

칼럼



김 학 준

전) 서울신문 기자

청량산(인천 연수구)에는 여러 개의 코스가 있다. 산자락에 자리잡은 호불사에서 정상으로 가는 것도 그 중 하나다. 절 옆에서 시작돼 정상으로 이어지는 533개의 나무 계단 기둥에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20여개의 글귀가 적힌 스티커들이 붙어 있었다.

누가 설치해 놓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글씨가 커 자연스레 눈이 가기 마련이다. 다양한 문구 중에서 유달리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다. ‘넌 잘하고 있어!’, ‘걱정말아요 힘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밑에 있는 것부터 나열한 것인데 그런대로 맥락이 이어진다.

수년 전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을 때부터 글들을 보면서 산을 올랐는데,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기에 이르렀다. ‘넌 잘하고 있어!’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격려의 메시지다. 이 말을 남이 나에게 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이다. 명상가들이 흔히 강조하는 ‘내 마인드가 나를 만든다’는 말과 상통한다.

‘걱정말아요 힘내요’는 걱정이 많은 현대인들이 새겨둘어야 할 말이다. 세계적인 작가 어니 젤린스키는 저서 ‘모르고 사는 즐거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하는 걱정 40%는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며, 걱정의 22%는 사소한 것이다. 또 걱정의 4%는 자시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즉 걱정의 96%는 해봐야 소용없는 걱정이라는 것이다. 다소 과장된 분석이기는 하지만, 걱정의 본질을 정곡으로 찔렀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세요’는 역설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피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서 어떻게 감히 즐기려는 마음이 들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얽매이지 말고 좋은 생각으로 돌리라는 얘기일 것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성인만이 할 수 있는 경지는 아니다. 해보니 불가능하지 않다. 차원이 다르지만, 운동이든 예술이든 공부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못 당한다는 말이 있다. ‘열심히’는 장기간 지속되면 한계를 드러낼 수 있지만, ‘즐기기’는 그런 게 없다. 연수구 시민연합회가 청량산 둘레길에 여러 개 표어를 내걸었는데 그 중 하나. “내 기분은 내가 정한다. 오늘 의 기분은 ‘행복’으로 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인생은 돌고 도니 지금의

마음 다스리는 법

고난에 너무 애태우지 말고 ‘다 잘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티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힘든 일을 겪어본 사람은 알 것이다. 모두 지나간다는 것을. 지나긴 겨울을 지내본 사람은 알 것이다.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결국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힘든 일도 슬픈 일도 괴로운 일도.”

코로나 사태와도 연관지을 수 있다. 도저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지만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나간 일이 되어버렸다. 코로나에 맞선 중국인들의 구호는 간단했다. ‘좀더 버텨시다’. 중국인들은 ‘무슨 일이든 지나간다’고 생각하기에 매사에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다. 직장과 가정, 사회생활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안 풀리는 일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을 달고 다닌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는 의사들도 있다. 스트레스는 완벽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취업 포털사이트 잡코리아가 직장인 11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7%가 ‘직장에서 완벽주의를 추구한다’고 답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지독한 경쟁사회에서는 실수를 하면 안되고 남보다 뛰어나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완벽주의자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늘 긴장하고 스스로를 질책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기 때문에 걱정, 우울,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미국 사회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완벽주의는 우리가 질질 끌면서 걸치고 다니는 20톤짜리 갑옷이다. 우리는 완벽주의가 우리를 보호해줄 것으로 믿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방해한다.”고 말했다. 스스로를 닦달하며 몰아세우는 사람은 늘 뭔가에 쫓기듯 일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치고 피곤해서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고, 오히려 그토록 바라는 완벽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분노(화)를 다스리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분노는 상대방만 아니라 자신에게 겨누어진 비수의 칼끝이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분노를 ‘순간의 광기’로 규정하며 “분노야말로 가장 파괴적인 감정이며, 분노만큼 인류의 희생을 초래한 역병은 없다.”고 강조했다. 화가 나 흥분하면 아무 말이나 내뱉게 되고, 그러면 돌아서서 반드시 후회하기 마련이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분노는 대개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래서인지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화가 날 때는 10까지 세어라. 화가 너무 많이 날 때는 100까지 세어라.”라고 말했다. 또 김혜남 정신분석 전문의는 “화가 났을 때는 어떠한 결심도 행동도 하지 마라.”고 충고했고, 스페인 철학자 그라시아노 누누이 당부한 바 있다. 화가 났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마다 잘못될 것이라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과거를 떠나보낼 줄 알아야 한다. 새로운 출발은 과거에 친숙했던 것들과의 이별에서 시작된다. 젊은 시절 높았던 이상과는 거리가 먼 자신을 자주 질책하면 우울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 과거를 떠나보내지 못하면 그 안에 사로잡혀 과거 속을 헤매는 망령처럼 살게 된다. 그러면 현재와 미래에 추진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자연스레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말로 이어진다.

집착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갇아먹는다. 사람들은 대부분 집착의 폐해와 무서움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버리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 그 어렵다는 담배까지 끊으면서도 집착에서 비롯되는 분노, 회한, 걱정, 고집에서 좀처럼 헤어지지 못한다. 나이 들수록 오히려 심해지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인지 젊은 세대로부터 예우는 받지만 존경을 받는 사람은 드물다. 애석하게도 이를 고치는 데는 특별한 처방이 없다. 스스로 다지고 또 다지는 것 외에는. 나이 먹었으면 내공이 생겨야 한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한다면 인생 하수다.



릴레이 이웃사랑 성금기탁



내가면 청소년유격동지회장 백미 나눔



양사면 교산1리 고봉환님 기탁



양사면 인화1리 최은만님 기탁



길상면 기탁_온수1리이장 온수1리주민



길상면 기탁_새마을지도자



자비불교 정토사, 강화읍에 김장 김치 기탁



화도면 희망일터,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백설기 떡 기부



길상 탁구동호회 취약 계층을 위한 성금 기탁



내가면 구하2리 이웃사랑 실천



강화읍 덕신고 털모자 기탁



강화농협 농가주부모임 선원면에 이웃사랑 생필품 전달



강화농협 농가주부모임 강화읍에 행복나눔 롤휴지 기탁



화도면 20개 기관단체, 겨울철 내의 나눔 훈훈



내가면 구하1리 양홍석 노인회장 희망나눔 쌀 기부



훈훈한 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강화투데이로 투고 해주세요!

많은 분들께 따뜻함을 전달하여 함께 느끼고 함께 감동하며 숨은 곳에서 따뜻함을 전달하는 분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맨발로 자연을 느끼며 걸어보세요! 강화군, 남산공원 '명품 맨발산책길' 탄생



남산공원 '명품 맨발산책길'



남산공원 '명품 맨발산책길'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강화읍 신문리 남산공원 일원에 '명품 맨발산책길'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남산공원에는 남산 음악분수와 함께 매일 걷고 싶은 맨발산책길이 조성되어 여가와 휴식, 건강까지 더하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맨발 걷기는 치매 예방과 기억력 향상, 혈액순환, 고지혈증 개선, 고혈압·당뇨 완화, 불면증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벌써부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번 조성된 맨발산책길은 총연장 1.1km, 폭 2M의 규모로, 기존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조성됐다. 산책길 초입에 세족장, 먼지 털이기를 함께 설치하여 이용객이 편하게 발을 털고 씻을 수 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군민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연과 함께하는 맨발 걷기를 통해 건강을 챙기길 바란다”며, “군민 건강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영유아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자연 속 교육시설 강화군, 유아숲체험원 개장…숲에서 놀고 배우고!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석모도 수목원에 유아숲체험원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유아숲체험원은 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숲을 배움터로 삼아,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며, 아이들의 창의력과 집중력을 기를 수 있는 자연 속 교육시설이다.

5,000㎡의 규모로 기존의 지형과 수목을 유지하면서 짚라인, 밧줄 다리 건너기 및 해먹, 흔들 바구니, 토끼 굴 및 통나무 놀이대, 나뭇잎 탁자 등

놀이시설을 설치해 아이들이 신체활동을 통해 모험심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숲에 대한 친숙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석모도 수목원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숲 해설과 체험 영어교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산림 교육 서비스 공간이다”며, “앞으로도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유아숲체험원 개장…숲에서 놀고 배우고!



강화군, 유아숲체험원 개장…숲에서 놀고 배우고!

직원 대상 응급상황 대처 요령 및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군노인복지관, 응급상황도 문제없어요!



강화군노인복지관 응급상황 대응 교육

강화군노인복지관(관장 윤심)이 지난 11월 2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령자 응급상황 시 대처 요령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응급구조사로 활동 중인 강사를 초빙해 직원들의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노인복지관 이용을 도울 수 있게 했다.

이날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방법, 하임리히법(기도 폐쇄 시 대처 방법), 고령자 응급상황 시 대처 요령 등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했다.

윤심 관장은 “노인복지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인 만큼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 능력을 길러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可 烹

가경



한우구이 · 돼지갈비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 76-4 ☎ 032-937-9800

연말모임 단체 | 단체룸 완비 | 홀 104석 | 연회석 48석 | 주차 150대 가능

보다 나은 인쇄와 광고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합니다!

명함 · 달력 · 상패 · 스티커 · 전단지 · 청첩장 · 포스터 · 책
봉투 · 인쇄 · 복사 · 코팅 · 팩스 · 제본 · 행사홍보기념품 제작

삼성인쇄광고기획은

오랜기간 쌓아온 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식 시스템과 최신의 기술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구비

SS 삼성인쇄광고기획

☎ 032)934-7778 / 010-6608-7778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20번길 2 (강화군청 후문 강화경찰서 앞)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군 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강화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제작되었습니다